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확 달라져 돌아온 폭스바겐 ‘파사트 GT’

## 최강 안전사양+진화한 편의성…이유있는 자신감

74mm 늘어난 휠베이스, 넉넉한 실내 공간 7개 에어백과 다중 충돌방지 시스템 적용 스마트폰 차량 터치스크린으로 간편 조작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시장 복귀의 첫 모델로 신형 파사트 GT를 선택했다. 베스트 셀링 모델인 골프나 티구안이 아닌 중형 세단인 파사트를 앞세운 이유는 대폭 업그레이드 된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신형 파사트 GT는 유럽형 모델로 새로운 MQB 플랫폼을 적용해 휠베이스가 74mm 늘어났고 그만큼 실내공간이 넓어졌다. 안전 및 편의사양도 더욱 진화했다. 동급 수입 세단에서 보기 힘들었던 차체 크기와 첨단사양을 갖춰 가성비비를 높인 폭스바겐 파사트 GT의 특징을 살펴봤다.

### ●동급 최강 안전사양, 수입 중형 패밀리 세단 새 기준

SUV가 대세라지만 세단의 인기가 그동안 주춤했던 것은 가성비와 상품성을 두루 갖추어 소비자가 만족할 중형 세단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파사트 GT는 가족 고객을 겨냥해 안전 사양에 심혈을 기울였다. 중형 패밀리 세단이 갖춰야 할 기본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선 안전의 기본인 에어백은 동급에서 찾아보기 힘든 운전석 무릎 에어백과 뒷좌석 사이드 커튼 에어백(프리미엄부터 적용)을 포함해 총 7개나 장착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안전 시스템도 대거 적용됐다.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의



신형 파사트 GT는 패밀리 세단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인 안전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7개의 에어백을 비롯해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오른쪽 위 사진), 보행자와 급작스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오른쪽 아래 사진)등이 기본 적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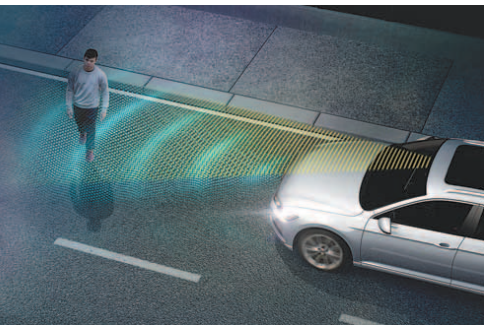
위험성을 줄여주는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기본 사양이다. 정체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 채 정속 주행을 보조해주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도 국내 출시 폭스바겐 모델 중 최초로 갖추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했다.

타이어도 특별하다. 작은 펑크는 스스로 메워주는 셀프 실링 기능의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어 타이어 펑크 같은 돌발상황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 ●앞좌석 통풍·히팅 시트, 운전석 마사지 기능 등 눈길

신형 파사트 GT에는 기존에 볼 수 없던 편의 사양들도 대거 탑재됐다. 앞좌석 통풍 및 히팅 시트는 물론 고급 대형 세단에만 적용되던 운전석 마사지 기능도 갖췄다. 차량의 속도나 내비게이션의 픽토그램과 같은 주요 주행 정보를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스크린에 표시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양손이 자유롭지 못할 때도 편리하게 집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이지 오픈 기능, 주행 및 주

차를 보조하는 차세대 360도 에어리어 뷰 기능 등도 있다. 이중 에어리어 뷰는 트렁크 테일 게이트, 도어 미러(각 1개씩 총 2개),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4대의 카메라를 사용해 180도 이상의 시야를 확보, 차량 주변 전체를 모두 스크린에 보여준다. ‘디스커버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8인치 멀티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있다. 운전자는 3차원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CD 플레이어, DMB와 TPEG, 미디어인 USB 슬롯, SD카드 슬롯,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등



이유있는 자신감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차량 터치스크린에서 조작할 수 있는 앱 커넥트 기능도 갖추었다. 스마트폰의 연락처, 음악, 뉴스 등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확인 및 조작해 주행 중 보다 안전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미러링크, 애플의 카플레이 등이 모두 가능하다. 트렁크 공간도 넓어졌다. 586리터의 공간을 확보했고, 2열 시트를 접으면 1152리터로 증가해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현대·기아차, 美 내구품질조사 최고 성적 달성

제이디파워 기아차 2위, 현대차 3위 발표  
차급별 평가는 투싼·프라이드 각각 1위

현대차와 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의 내구품질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발표한 2018 내구품질조사(VDS, Vehicle Dependability Study)에서 기아차가 2위(122점), 현대차가 3위(124점)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전년 대비 순위가 4계단 상승하며 한국차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 브랜드 2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도 지난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고급차를 포함한 전체 브랜드(31개) 순위에서도 기아차는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한 5위를, 현대차는 전년과 동일한 6위를 각각 기록했다.

## 5G 주도권 싸움, 이통3사 CEO 바르셀로나 총집결

MWC서 SKT·KT 5G 신기술 공개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에서는 ‘5G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글로벌 이동통신기업들은 26일부터 3월1일(현지시간)까지 이동통신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상용화를 앞둔 차세대 이동통신 ‘5G’ 이슈 선전에 나선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전시관을 마련하고, CEO들이 모두 현장을 방문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한 외교전을 벌인다. SK텔레콤은 ‘완벽한 5G’를 테마로 MWC에 604m²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한다. 9년째 운영하는 단독 전시관이다. LTE와 5G를 오가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종망 연동’ 등을 전시한다. 관람객은 홀로그램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5G가 변화시킬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조사에서 BMW, 아우디, 링컨, 캐딜락 등 독일과 미국의 고급 브랜드를 제쳤을 뿐 아니라 내구품질조사에서 10년간 TOP3에 올랐던 도요타를 처음으로 앞서는 성과를 거뒀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프라이드(현지명 리오)가 소형 SUV와 소형차에서 각각 최우수 품질상(1위)을 받았으며, 현대차 싼타페(SANTA FE Sport)는 중형 SUV에서 우수 품질상(2위)을 수상했다. 이번 내구품질조사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년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177개 항목에 대한 내구품질 만족도를 조사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혁신의 결과가 지난해부터 가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변하는 자동차 산업 속에서 자동차의 기본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가 발표한 ‘2018 내구품질조사’에서 기아차가 2위, 현대차가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차급별 조사에서는 현대차 투싼(아래)과 기아차 프라이드가 각각 최우수 품질상(1위)을 받았다.

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과정과 5G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소개하는 ‘5G존’과 AI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을 선보이는 ‘서비스존’을 운영하다. LG유플러스는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3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보내 5G와 AI 등 미래 핵심 먹거리 발판을 추진한다. 이들 이통3사의 CEO들도 모두 바르셀로나로 출출동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5일 열리는 GSMA 이사회에 참석해 전세계 이동통신사 경영진과 5G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시회 기간 중에 글로벌 ICT 기업과 개별 미팅도 준비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현지 전시관을 돌아보고, 글로벌 기업 미팅에서 팡창 5G 시범 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5G 상용화에 대한 협력도 추진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글로벌 제조사와 5G 장비개발을 논의하는 한편 해외 통신사업자들과 전략적 사업제휴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경제현장.jpg

강릉 ‘5G 커넥티드’ 찾은 대한민국 루지 국가대표팀



대한민국 루지 국가대표 성은영, 에일리 프리세, 박진용, 조정영, 임남규 선수가 설 연휴 강릉 올림픽 파크 KT 홍보관 ‘5G 커넥티드’를 찾았다. KT 초청으로 홍보관을 방문한 선수들은 관람객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스포츠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남규 선수가 5G 커넥티드를 방문한 관람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사진제공 | KT

### 강원랜드복지재단, 다문화 특화사업 공모

강원랜드복지재단(이사장 한형민)은 강원도 18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3월9일까지 지역별 다문화 특화사업을 공모한다. 지역밀착형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주여성 정착지원 프로그램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접수는 19일부터 3월9일까지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원랜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총 37억 원을 지원했다.

김재범 기자

### LG ‘G6·Q6’ 라벤더 바이올렛 색상 출시

LG전자는 21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라벤더 바이올렛 색상을 적용한 스마트폰 G6와 Q



는 은은하고 로맨틱한 색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라벤더 바이올렛 색상 추가로 G6는 기존 아스트로 블랙, 아이스 플래티넘, 미스트 화이트, 테라 골드, 마린 블루, 라즈베리 로즈까지 7가지 색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Q6도 6가지 색상을 갖췄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